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5호 [부제 제25824호] 주제 106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만경대혁명학원 혁명사적관 개관식 진행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역사를 빛내여 가는
우리 당의 손길 아래
만경대혁명학원에 혁명
사적관이 새로 일때서
개관되었다.

연간 축면적 이
3,500여 m²에 달하는
혁명사적관에는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 의미와
숭고한 후대를 지니고
있어 본적이 없는
혁명가유자녀 교육의
위대한 역사를 수놓아
오신 철세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시
기별로, 내용별로 전
면적으로 짐작 성되어
있다.

당의 품속에서 태여
나고 강화발전되며 온
만경대혁명학원에 혁명
사적관이 새로 꾸려짐으
로써 학원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학원.
우리 당의 혁명학원으로
서의 품격을 완벽하게 갖
추게 되었으며 주체혁명
의 평화를 끊임없이 이어
갈 핵심璞간들을 육성하
는 밀집된 원종장으로
더욱 친연히 빛을 뿌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철세 위인들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역사를 길이 전하는
위대성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설 것이다.

개관식은 만경대혁명학원 혁명사적
관 개관식이 9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

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와 만경대

혁명학원 원장인 특급소장 오룡택동지,



건설자들, 학원 교직원, 학생들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개관사를 최봉해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만경대혁명학원에 혁명
사적관이 훌륭히 일떠설 것은 우리 군
대와 인민의 크나큰 공지이고 자랑이
며 만경대의 혈통을 끊어놓지 이어 주체
혁명취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가려
는 우리 당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것이 어려웠던 해방직후 혁명의 길에

서 먼저 떠나간 건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유서깊은 만경대에 혁명학원을
세워 주시고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을
천어비의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세심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날마다 뵙고 싶어하는
원아들의 절절한 소망을 해아끼시여

수십 차례나 천지지도하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여 학원을 세상에 부립
없는 원아들의 요람, 혁명가유자녀교
육의 전당으로 꾸려주시었다고 강조
하였다.

황일의 냉성영웅 김정숙여러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날마다 뵙고 싶어하는
원아들의 절절한 소망을 해아끼시여

원아들과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역사와 업적으
로 끈끈히 무장시키고 주체혁명위업
을 계승 완성하기 위한 뚜렷으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교양의 거점
이라는 대하여 언급하였다.

2면으로 계속



만경대혁명학원 혁명사적관 개관식 진행

1면에서 계속

주체혁명의 명맥을 줄기 차게 이어나가는데서 혁명 사적을 통한 위대성 교양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이 많은 만경대 혁명학원 혁명사적관을 새로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나라의 천만중대사를 풀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사를 다그쳐 끌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어 만경대 혁명학원 혁명사적관은 우리 당의 후대 교육증시 사상과 정책의 정당성을 내외에 힘 있게 과시하는 위대성 교양의 전당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서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창립 70돐을 맞는 만경대 혁명학원을 축하방문하신 뜻깊은 지난 10월 12일 개관을 앞둔 혁명사적관을 찾으시어 귀중한 가르침심을 주시면서 만경대의 혁명사적관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뚜렷

이 살피도록 혁명하게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승고한 뜻을 담고 일군들과 건설자들, 인민군군인들이 불철주야의 전투를 벌여 불과 몇개 월기간에 혁명사적관을 원공하였으며 절세위인들의 영상사진현들을 가장 밝고 정중하게 보시고 혁명사적관을 영구보존하는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친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참으로 만경대 혁명학원 혁명사적관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 가유자녀 교육사업에 쌓아온려신 불멸의 업적을 세세년년 깊이 빛내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에 의해 일떠서고 우리 군대와 인민

의 떡우간은 충정의 마음이 주추들이 되고 기둥이 되어 떠날들이 울린 혁명의 만년 세보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만경대 혁명학원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온 나라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경로의 정을 담아 한정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어 학원을 주체혁명위업을 헌예고나간 핵심물간들을 기워내는 원종장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었으며 혁명 가유자녀들이 혁명의 바탕을 얹세끼 이어나가도록 결을 결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었다.

그는 만경대 혁명학원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학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학원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본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의 혁명 가유자녀교육정책을 충직하게 믿들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무궁창창한 앞날을 밝음직하게 담보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사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학원에서는 교직원, 학생들을 통해서 혁명사적관을 통한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만경대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

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헌님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리 러

모시며 혁명사적관관을 통하여 학원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물없이 및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혁명가유자녀들의 행복한 삶과 밝은 미래가 있으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일편단심 최고령도자동지께

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학원교사를 씩씩하게 부르며 사회주의강국을 억척같이 떠나고나갈 맹장형의 군사지휘관, 유능한 혁명인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울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만경대 혁명학원 일군들과 혁명사적관 강

사, 종업원들은 대양민족의 국보인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며 혁명사적관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과 사적관관리운영, 관관조직을 실속있게 짜고들이 자신들이 지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국제적인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원원인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짜워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만경대 혁명학원 혁명사적관을 활관하였다.

참가자들은 만경대 혁명학원 혁명사적관 중앙홀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전정하고 살가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혁명사적관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면서 위대한 대역의 손길 아래 충성과 보답의 한길만을 걸으며 70년의 빛나는 연혁사를 아로새겨온 학원의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흐나운 사랑과 온정속에 꾸려져 개관된 수영관에 대한 희설을 듣고 물놀이장과 수영장 등을 돌아보았다.

현대적인 수영관에서 마음껏 물놀이와 수영을 하는 원아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그들은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사랑을 헌출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원어버이로 높이 모시어 우리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것을 매우 굳게 확신하였다.

만경대 혁명학원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대체같은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갈 불리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포악한 날강도 침략자에 대한 치솟는 분노

남조선에서 트럼프의 행각을 계기로 반미, 반전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은 『북침전쟁연습 중단! 전쟁미치광이 트럼프 규탄! 반미·반전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자』를 걸었다. 미국의 강권과 침략적 전횡을 규탄하는 두 편지가 전망에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일 폐회국회정사당에서는 수십명의 청년학생들이 경찰의 폭압 속에서도 『전쟁반대, 트럼프반대』 등의 구호를 휘저며 통성루정을 전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세차게 벌어지고 있는 반미, 반전투쟁은 침략전쟁 등을 일삼으로 자신들에게 해아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날강도 미세에 대한 치솟는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미제는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우에 혼전쟁의 걸은 쿠를 물어오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다.

지금 미국은 가장 악랄적인 반공화 국제체소동으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탈탈히하고 밤낮에는 한편 군사적 위협과 공격으로 남조선의 정세를 최극단으로 끌고가고 있다.

늘다리미치광이 트럼프는 북침전쟁 폭언들을 끊임없이 내뱉으면서 극도의 진정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저불이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밀어지지 않으리만 풍기며 『한정희 준비』 되어야겠다는 호전적 망발을 또다시 쳤다.

한편 미제는 트럼프의 남조선행각 때마다 미친듯이 조선반도와 주변수역에 핵무기와 핵탄두를 집중전개하고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요란하게 벌리면서 살벌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조선동태와 그 주변에서 작전중인 미해군 함선들에는 『토마호크』 순항미싸일발

사준비경고령령이 하랄되었다. 미전략폭격기들은 24시간비상출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그야말로 일속죽발의 초기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리성을 잃은 트럼프와 그 패거리들은 무분별한 전쟁기가 언제 어느 시각에 북침전쟁의 불길을 터뜨릴지 알

트럼프는 이미 『전쟁이 일어나도 조

선반도에서 일어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

어도 거기서 죽는것』이라는 광적인 폭언을 뇌까린다. 북침아랑에 사로잡혀 허겁지려면 까딱하지 않고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재물로 만들려고 미쳐남

뛰는 흥악한 미제의 전쟁팔이야말로 세계의 근원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남

미국의 강점과 지배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해아될수 없어 코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에 의해

70년이 넘도록 피눈물나는 식민지노

에 살이를 강요당해왔다. 미국이 침략

의 군화장을 들이면 때로부터 남조선

에서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이

없고 혼성이 터져나오지 않은 날이

없다.

미국의 침략적이며 학살적인 정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통장한 이후 더욱

로 꾸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는

그 무슨 『안보무임승차』를 운운하며

피의들에게 남조선 강점 미세침략군의

유지비를 대폭 끌어올릴것을 강박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전쟁파문 『싸드』의 배치비용과 남조

선에 들의 우려로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산

무기·강대책 등으로 남조선인민들의 혈세

를 악착스럽게 떨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

정』을 저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들어고

치려고 날강도적인 질점을 부리고 있다.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에

입방적인 페력을 가져다주는 학살법정이

라는 것은 널리 속도된 사실이다. 그런데

트럼프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이 남조

선에만 우려한 『끔찍한 협정』이라고

터무니없이 결고들면서 피의들에게 제재

상용 강요하였다. 이로 하여 피의들은 움

며 겨자락기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

정』 제재상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강도적인 유포에도 개별경우 경우 가뜩이나 위약한 날

간장지운아들이고 너절한 말과 후기자 아니

겠는가. 폐의당국의 『대북독자제재안』 발표음을

외세의 입김이 없이 순간도 살아갈수 없었다.

남조선인민들이 반미, 반전투쟁은 지

국의 정당하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치해와 간섭,

북침전쟁행동을 끊임없이 않는다면 남조

선인민들은 언제 가도 수단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자신들의 운명과 존엄을 지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야 한다.

반미주주, 반전평화투쟁만이 남조선인민들의 삶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결사의 의지를 암

고 반미, 반전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

차게 지펴올립으로써 외세와는 없는 민

주의 세세상을 안아오고자 말것이다.

친미사환군의 쓸개빠진 추태

남조선피의들이 미국의 식민지 노복으로서의 저지문한 물들을 또다시 드러냈다. 폐의당

국이 트럼프의 서울행 각파의 의도적으로 때를 맞추어 새로운 만공화 국제제재 놀음을 벌린 것이다.

폐의들은 지난 6일 그 무슨 『주요외회수집원천의 차단』이니, 『효과예상』이니 하고 비판형

으로서의 저들의 더러운 정체만을 폭로해줄뿐이다.

스쳐지날수 없는 것은 말로는 줄곧 『남북관계

특별위원회』를 뛰어넘어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너스메를 떨면 폐의들이 어떻게 하나

상전의 관심을 사불 실신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칼을 빼든것이다.

트럼프는 러성도 불멸도 다 알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미쳐 돌아지는 늘다리깡께, 일에

서 구멍이 나가는지 땀이 나가는지도 분간 못

하는 천하의 불당나니로 공인인자이다. 트럼프

가 세인을 경악케 하며 데일같이 쏟아내면 그 무순짓도

서슴지 않는 더러운 철미주구들의 쓸개빠진 추태이다.

폐의들이 이번의 『대북독자제재안』에 대해

그 무슨 『효과』니, 『기여』니 하고 제집단

으쓱해하지만 그것은 사실 퀴퀴한 시궁창에 구멍

한 흉터방을 보탠것이나 다행없는 허망하기 짹이

없는 짜랄이다.

알려져비와 같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수많은 제재안을

고집해내고 실행하였다.

하지만 원쑤들의 악랄한 제재와 공세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은 끊임없이 비약하고 전진하며 세

세계적인 군사력을 키우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런데 하물며 미국의 히틀러식은 주구파위가

『독자제재』를 끌어내고 해서 대체 흐름을 뒤바

꾸고 현실이 달라지겠는가. 천민의 말이다.

폐의들이 미국과 아합하여 반공화 국제제재

에 제아무리 평叛해도 병진의 기치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은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 원쑤들의 제재소동이

발악적으로 간행될수록 국가핵무력 완성의 최종 목표달성을 위한 우리 천만군민의 진군속도는 더욱 빨라질것이다.

『대북독자제재안』이라는것을 네고 미국의 반공화 국제제재통에 적극 풍보해나리는 폐의들의 망동은 미국의 살살개, 불쌍한 미승군으로서의 저들의 더러운 정체만을 폭로해줄뿐이다.

스쳐지날수 없는 것은 말로는 줄곧 『남북관계

특별위원회』를 뛰어넘어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너스메를 떨면 폐의들이 어떻게 하나

상전의 관심을 사불 실신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칼을 빼든것이다.

남조선집권세력에게 민족의 운행에 대한 관심

이 꼬물만풀이라도 있다면 트럼프의 정신병적인

전쟁태세에 각심을 높이고 그에 반기울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천민시대와 외세의존에 활동한 폐의를

은 멀어놓고 아무런 실효도 없는 반공화 국제제

통을 떨리며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상전의 대조

설립정책통에 추종해나서고 있다. 이 얼마나 더절

한 매국반역행위인가.

미국상전을 만족시키고 그의 지지를 얻어 권력

의 자리를 유지할 계획밀에 민족의 운명을 해치는 역들에 물에 조선반도에서 혁명행위가 남

로 격파되고 폭동노도쳐 파국에서 해나지 못하

고있는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미국의 히틀러식은 주구파위가

『독자제재』를 끌어내고 해서 대체 흐름을 뒤바

꾸고 현실이 달라지겠는가. 천민의 말이다.

폐의들이 미국과 아합하여 반공화 국제제

통에 제아무리 평叛해도 병진의 기치높이 최후승리

를 향하여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은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 원쑤들의 제재소동이

썩어 없어져도 아깝지 않을 너털한 목숨을 부

지하기 위해 대미주총에 열을 올리며 민족에게

죽어온 남조선피의들은 저들의 용납 못할

동족대결동의 대가를 반드시 갚비싸게 치르게

될것이다.

여기 없어져도 아깝지 않을 너털한 목숨을 부

지하기 위해 대미주총에 열을 올리며 민족에게

죽어온 남조선피의들은 저들의 용납 못할

동족대결동의 대가를 반드시 갚비싸게 치르게

될것이다.

여기 나오고 있다. 심지어 다른 나

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제멋대로

로 유린하여 침략을 일삼는 미국도 우리

의 강위한 핵억제력을 통해 나서며

가로수를 털수도 없는지 땀이 나기도 한다.

이번에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늘다리미치광이 트

